

치유와 공감으로 날아오르기

『스파클』
최현진 장편소설



책 소개

“오기가 났다. 원하는 대로 살 것이다.”

우리는 반짝이는 태양과 높은 하늘을 동경하면서도, 너무 가까이 다가가면 타 버리지 않을까, 너무 높이 올라가면 떨어지지 않을까 불안한 마음을 감추고 살아간다. 엄지와 검지로 카메라 모양을 만들며 하늘을 향해 서 있는 소녀가 포착하고 있는 순간은 어떤 모습일까? 태양의 눈부심과 자유로운 하늘은 소녀를 어디로 이끌게 될까?

5년 전 사고 이후 모든 것이 달라진 우리는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혼란스럽다. 주변의 물음에 좀처럼 떨어지지 않는 입술 사이로 어른들의 은근한 권유가 밀려든다. ‘의사가 되어 보는 것은 어때?’ 이미 정해진 x 와 완벽히 정리된 루트를 따라가는 것이 어쩌면 가장 손쉬운 길일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그 길 속에서는 세상을 제대로 마주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우리는 x 의 값을 스스로 정하고, x 를 구하는 경로를 찾는다. 혼란스럽지만 자신만의 미지수를 찾는 여정을 떠나고, 그 과정 속에서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꿈을 찾게 된다.

우리의 여정을 함께하면서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하는 순간이 찾아올 것이다. 화재 사고나 각막 이식과 같은 극적인 사건 때문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마음속 깊이 갖고 있는 상처가 있다는 공감, 치유와 용기를 얻을 수 있다는 공감이다. 마음의 상처를 마주하는 방식은 제각각 다르다. 타인에게 들이지 않게 꾀꾀 숨기고 싶어 하면서도, 동시에 세상에 드러내고 싶은 모순을 경험하기도 한다. 우리의 선택을 공감하고 용기를 응원하면서, 때로는 반박하면서 자신만의 스파클(sparkle)을 마주치는 날을 기대할 것이다.

수업의 초점

1. 인물의 성장에 주목하며 나의 삶에 적용하기

성장소설은 인물이 세계 속에서 변화하여 성숙한 한 인간으로 성장해 나가는 과정을 그린 소설이다. 그 과정에서 혼란스러운 자아를 발견하기도 하고, 세계와 대결을 펼치며 좌절하기도 한다. 독자는 소설 속 인물이 상처를 마주하고 좌절과 혼란을 겪으며 마침내 극복하는 과정을 보며 자신의 모

습을 투영한다. 성장소설이 가상의 이야기에서 끝나지 않고 우리의 삶에 울림을 주는 이유다.

본 수업은 인물의 성장에 초점을 두어 활동을 구성하였다. 읽기 중 활동으로 주요 사건 속에서 인물이 성장한 모습을 정리하는 독서 일지를 작성하고, 읽기 후에는 인물 circle map과 성장 그래프를 그리도록 하였다. 성장의 계기가 된 사건을 파악하고 전과 후의 모습을 비교함으로써 인물의 변화를 분석할 수 있다. 더불어 인물의 성장을 자신의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활동을 구성하였다. 나만의 뜬구름 잡는 소리 외치기, 이루고 싶은 이야기로 소설의 도입부 작성하기 등의 활동을 통해 소설 속 장면과 비슷한 상황에 처했던 경험을 떠올려 보고, 자신이 구하고자 하는 미지수의 값이 무엇인지, 결국 내가 이루고 싶은 이야기가 무엇인지 생각해 볼 수 있다.

2. 차시별 수업 계획

차시	활동	
1	읽기 전 활동	[활동1] 꿈과 현실에 대한 생각 나누기
		[활동2] 수학과 관련된 배경지식 떠올리기
2-5	읽기 중 활동	[활동1] 인물의 성장에 주목하며 읽기
6	읽기 후 활동	[활동1] 인물 circle map 그리기
7		[활동2] 성장 그래프 그리기
8		[활동3] 작가의 의도 추측하기
9		[활동4] 추천하는 편지 쓰기
10-11		[활동5] 나만의 뜬구름 잡는 소리 외치기
		[활동6] 이루고 싶은 이야기로 소설 쓰기



●●● 읽기 전 활동

| 1차시 |

활동 1 꿈과 현실에 대한 생각 나누기

— 소설을 읽기 전에 대한민국 중·고등학생의 현실과 꿈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를 나눠 보는 활동이다. 작품 속 한 장면을 미리 보면서 어떤 상황일지 추측해 보고, 자신도 주인공과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는지, 대한민국의 중·고등학생으로 사는 현실과 진정으로 바라는 꿈에 대한 생각을 나눠 본다.

1. 다음 구절을 읽고, 질문에 답해 보자.

“앞으로 내가 뭘 하고 싶은지 먼저 물어봐야 하는 거 아냐?”

아빠는 단호하게 ‘아니’라고 대답했다.

“대한민국 중고등학생 중에서 하고 싶은 걸 하고 사는 애가 몇 퍼센트나 되겠어.
하고 싶은 게 있거나 하고?”

1) 위의 장면이 어떤 상황일지 추측해 보자.

2) 나에게 혹은 주변 친구에게 비슷한 경험이 있는지 떠올려 보자.

3) 대한민국 중·고등학생의 꿈과 현실에 대한 생각을 친구들과 나눠 보자.

활동 2 수학 관련 배경지식 떠올리기

— 소설 속에 수학 개념이 나온다는 것을 안내하고, 관련된 배경지식을 이끌어 내는 활동이다. 배경 지식이 부족할 경우, 교사가 간단하게 개념에 대해 안내하거나, 친구들끼리 설명을 주고받도록 한다.

2. 다음 수학 개념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을 떠올려 보고 친구에게 설명해 보자.

x, y	루트	일차함수	유리수	미분과 적분
--------	----	------	-----	--------

읽기 중 활동

| 2~5차시 |

활동 1 인물의 성장에 주목하며 읽기

— 주요 사건 속에서 인물이 성장한 모습을 정리하며 읽는 활동이다. 독서 일지에 적은 인물의 성장이 읽기 후 활동과 연계된다는 것을 미리 안내한다.

1. 주요 사건 속에서 인물의 변화된 모습을 정리하며 읽어 보자.

읽은 날짜	
읽은 부분	쪽 ~ 쪽
주요 사건	

인물이 성장한 모습	
떠오르는 질문	

●●● 읽기 후 활동

| 6차시 |

활동 1 인물 circle map 그리기

— 5년 전 사고를 둘러싼 가족들의 마음을 정리해 보는 활동이다. 소설은 유리의 시선으로 전개되지만 유리를 포함한 가족들의 상황과 처지를 함께 생각해 보며 사건을 다각도로 파악하도록 한다. 같은 사건을 겪었지만 각 인물이 어떻게 받아들이며 살아가고 있는지 이해하며 인물들의 마음에 더 깊이 공감할 수 있다.

1. 5년 전 사고를 둘러싼 가족들의 마음을 추측하며 인물 circle map을 그려 보자.

① 다음 말풍선을 보고, 누가 한 말인지 적어 보자.

영이는 이번 주 내내 한 번도 자가 반응이 없었어. 그게 뭘 뜻하는지 알아? 뉘에서 신호를 보내지 않는다는 거야. 넌 아니잖아. 그런 일을 겪고도 멀쩡히 살아남아서 머리를 쓸 수 있는데, 감사하게 생각해야지.

아빠는 지금 난기류 속에서 레버를 잡고 버티고 있는 거야. 우리를 무사히 착륙시키기 위해서.

죽다 살아났지 않간? 네 마음대로 살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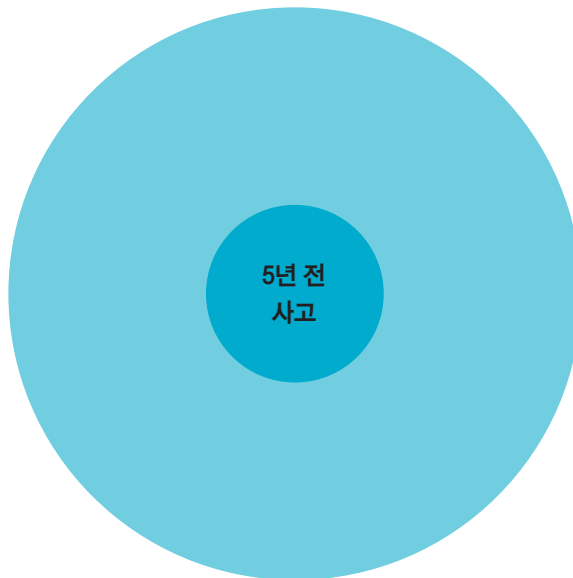
나 때문에 그렇게 된 거 같아서! 내 직업 때문에 너희를 지켜주지 못한 거 같아서!

우리는 다 실패했다. 난 나대로, 아빠는 아빠대로, 엄마는 엄마대로, 할머니 할머니대로, 좋아하는 걸 포기하고 살면서.

② 5년 전 사고 이후 각 인물이 어떤 마음과 생각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지 인물 circle map을 그려 보자.

1) 큰 원 안에 인물을 적는다.

2) 큰 원 바깥에 5년 전 사고에 대해 각 인물이 가진 생각을 적는다.



활동 2 성장 그래프 그리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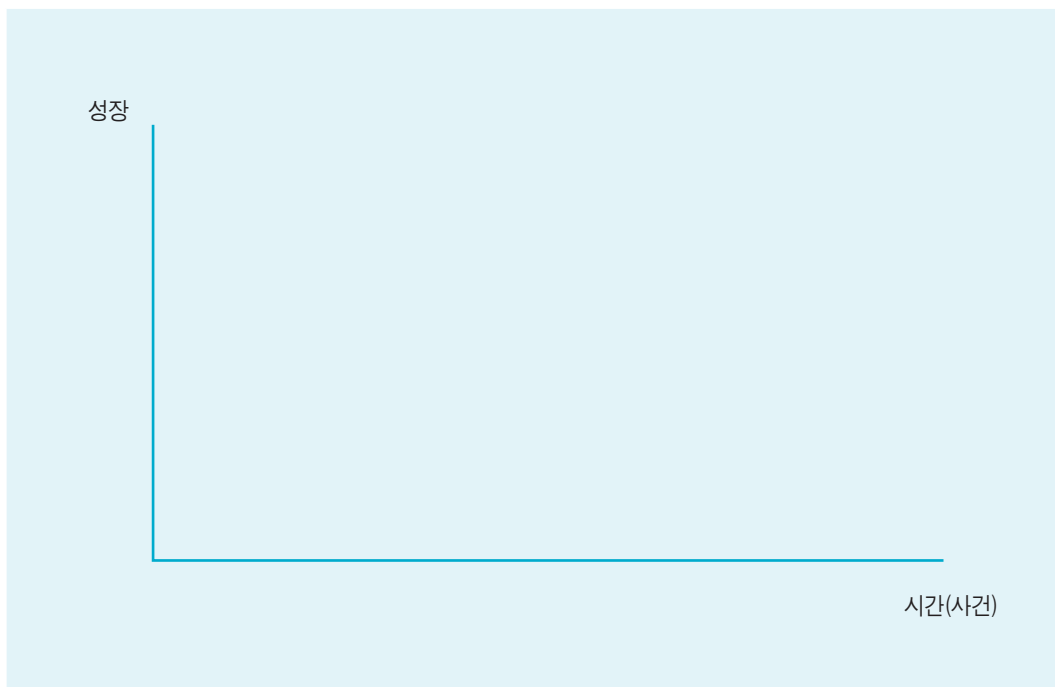
— 유리의 성장 과정을 구체적인 사건과 모습으로 정리하여 그래프로 그리는 활동이다. 읽기 중 활동에서 작성한 독서 일지를 바탕으로 1의 표를 작성하도록 한다. 이를 바탕으로 2에서 그래프를 작성한다. 그래프의 가로축은 시간, 세로 축은 성장의 정도를 의미한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유리가 겪은 사건을 통해서 유리의 변화된 모습을 구체적으로 적도록 안내한다. 그래프의 형태는 막대, 곡선 등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다.

1. 유리의 변화에 주목하면서 성장 그래프를 그려 보자.

① 유리가 성장한 계기가 되는 사건과 성장한 모습을 표로 정리해 보자.

전	성장의 계기가 되는 사건	후

② 유리가 성장한 계기가 되는 사건과 성장한 모습을 표로 정리해 보자.



활동 3 작가의 의도 추측하기

— 소설에서 전하고자 하는 주제 의식과 작가의 의도를 추측해 보는 활동이다. 제시된 구절을 통해 작가가 청소년에게 해 주고 싶은 말을 추측해 본 후, 스스로 주제 의식이 담긴 문장을 소설에서 찾아보도록 한다.

1. 소설의 내용을 바탕으로 작가의 의도를 추측해 보자.

① 다음 구절을 참고하여 작가가 소설을 통해 청소년에게 해 주고 싶은 말이 무엇일지 추측해 보자.

사람들은 흔들리는 것을 굉장히 무서워하지만 중심을 잡으려면 흔들림은 필연적이라.

② 소설에서 전하고자 하는 주제 의식이 담긴 문장을 고른 후, 해당 문장이 표현한 주제를 적어 보자.

문장 :

▶ 주제

활동 4 추천하는 편지 쓰기

— 앞의 활동에서 추측한 작가의 의도와 주제를 참고하여 소설을 추천하고 싶은 사람을 떠올려 보고 편지를 쓰는 활동이다. 단순히 소설에 대한 전반적인 감상평을 쓰는 것이 아니라, 소설의 내용과 추천하고 싶은 사람의 특성과 관련지어 구체적으로 작성하도록 안내한다.

1. 이 소설을 추천하고 싶은 사람을 떠올려보고, 편지를 써 보자.

▶ 추천하고 싶은 사람: ()

▶ 그 이유

활동 5 나만의 뜬구름 잡는 소리 외치기

— 소설 속 ‘뜬구름 잡는 소리’의 의미를 파악하고, 나만의 뜬구름 잡는 소리를 생각해 보는 활동이다. 각 인물의 말과 행동을 통해 ‘뜬구름 잡는 소리’의 의미를 파악하고, 가장 공감 가는 인물을 골라 자신의 생각을 정리한다. 이후에 나만의 뜬구름 잡는 소리를 자유롭게 떠올려 보는 활동을 통해 자연스럽게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성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한다.

1. 소설 속 ‘뜬구름 잡는 소리’의 의미에 대해 생각해 보자.

① 다음을 참고하여 각 인물에게 ‘뜬구름 잡는 소리’가 어떤 의미인지 생각해 보자.

관용구	의미
뜬구름을 잡다	막연하거나 허황된 것을 좇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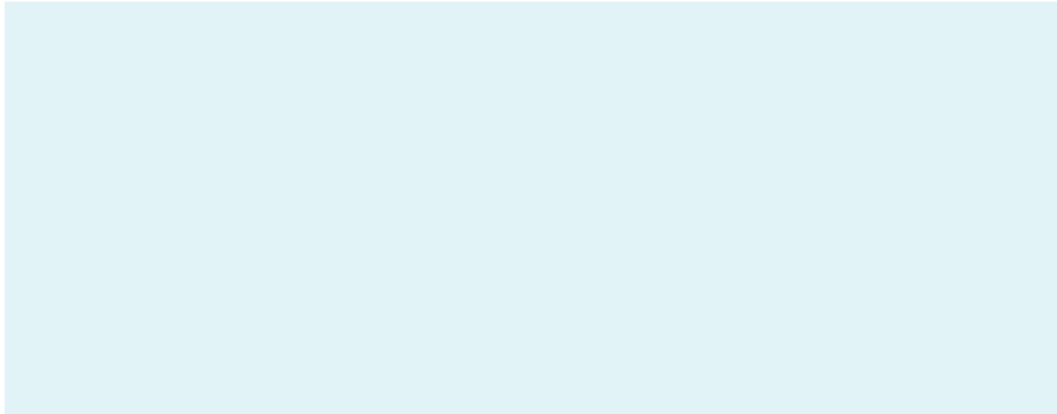
아빠	
유리	
영준	

② 가장 공감 가는 인물을 고르고, 그 이유를 적어 보자.

▶ 공감 가는 인물: ()

▶ 그 이유

③ 아래에 구름을 그려 보고, 자신만의 뜬구름 잡는 소리를 떠오르는 대로 자유롭게 적어 보자.



| 10차시 |

활동 6 이루고 싶은 이야기로 소설의 도입부 쓰기

— 소설 속 유리가 수행한 국어 과제처럼 자신이 이루고 싶은 이야기로 소설의 도입부를 쓰는 활동이다. 자신이 구하고자 하는 x 가 무엇인지 떠올려 보고, x 를 구하기 위한 루트를 상상하며 마침내 이루고 싶은 이야기를 써 보도록 한다.

1. 소설 속 유리의 국어 과제처럼 자신이 이루고 싶은 이야기로 소설의 도입부를 써 보자.

